

# “수준별 불서추천 가이드 · 독서지도 필요”

이규만: 캠페인에 의해 무료로 배급되는 책들은 귀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이 읽히는 것은 좋지만 대가없이 유통되는 책이 많을수록 출판시장은 어려워집니다. 일부 언론사나 신협단체 등이 출판사에 반품된 책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반품서적도 엄연히 출판사 재산입니다. 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유통되는 책의 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윤창화: 불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 불서를 귀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불서라면 일반 교양서적과 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최근 2-3년 사이 불교문화에 관한 책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합람미달의 서적도 많습니다. 주로 예제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문화적 수준도 모자라고 교리적으로도 수준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승천: 스님들의 법문집 혹은 예제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기표현이 과하다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법문집을 내더라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내야 합니다. 자기 욕심만 갖고, 이를 내기 차원에서 법문집이나 수필투를 출간하는 풍토가 전체 불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병두: 대형서점에서 불서가 구적으로 물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연태: 한 해를 기준으로 불서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유통되고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될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군요. 유통구조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규만: 불서의 유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불교시대사의 경우 도매서점 3곳, 지방



그중에는 100만부에 이르는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평균 중당 4000권으로 잡고 후하게 계산하면 신간은 1년에 120만권정도 됩니다. 구간도서 중 유통 · 판매되는 것이 1500종 정도라고 보면 부수로는 130만권쯤 될 것입니다. 여기에 법보시를 합하여 전부 400만권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산입니다. 금액으로는 불교계 출판시장은 3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통계는 불자 인구를 1200만 명이라

이 낮다고 봅니다. 좋은 도서가 나와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병두: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자들에게 독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규만: 불서의 제작 형태를 볼 때, 불자들을 위해서만 기획되고 집필하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불교 밖의 사람을 위한 기획출판도 필요합니다.

최승천: 저도 좋은 불서 생산을 위한 열쇠는 기획출판에 있다고 봅니다. 원고를 받아 쉽게 출판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좋은 필자를 발굴하고 테마를 개발해야 합니다. 덧붙여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획기적인 시도가 따라야 대중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불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필자를 발굴하기 위해 민족사가 필자를 공모한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이병두: 일반 출판사들의 경우 책을 하나 내는 데 2년여의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은 읽다보면 그 노력이 보이거든요. 시간과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번역서를 보면 대형서점과 출판사에서 선점해서 영세한 불교계 출판까지 차체가 안 오지 않습니까? 눈을 조금만 돌리면 미국 외에 동남아, 인도 등에도 좋은 책이 많습니다. 또 삼성증권 우성택처처럼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을 필자로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연태: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찰이라는 공간만큼 불자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쉬운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도서관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찰에 적어도 도서관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찰이 불서읽기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창화: 불자들에게 스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들의 백 마디가 스님의 한마디만 못하다고 할 정도지요.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하고 소개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출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불서읽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최승천: 현재의 독서 풍토라면 사찰 도서관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소규모 포

서점에 대한 할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스24의 종교코너에서 '불교출판평가 베스트셀러' 등이 그 개척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병두: 잘 팔리는 책이라면 알아서 좋은 자리에 공간을 넓게 해줄 것입니다. 동남아국가들에서는 불교서적 코너가 아주 넓습니다. 다종교인 그곳에서 불교도서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규만: 불서는 신간종교서적 전체의 10%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판매량도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동남아, 일본, 우리나라는 종교 성향이 다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불서를 읽는 타종교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타성이 강한 개신교의 경우 불서를 읽기 꺼려합니다.

임연태: 불자가정에 '108권장서 갖기 운동'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불서읽기 운동을 위해서는 종단이나 단체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윤창화: 우선 불서를 읽는다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지 책을 읽는다는 정도라면 종단이 나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불서를 읽는다는 것은 책을 통해 불교를 알고, 불교교리의 이해를 높이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단이나 스님들이 단순한 책을 읽자는 것이 아니라 포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선은 기초교리 수준도 이해 못하는 다수 불자들의 교양을 위해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승천: 불서읽기운동을 할 때만 보면 어떤 책을 읽는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검증된 책을 말하려면 불출판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불서 10'에 오른 책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들을 선정해 독후감

## 윤창화 불서 읽기 포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 이병두 기획출판 위한 시간·재원 투자 필요

서점 100여 곳을 직거래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매점에서 담당하므로 유통 공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전담사원을 들 수 없는 출판사도 총판이나 도매점과의 거래를 통해 해결합니다.

최승천: 배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어느 서점에서 불서를 찾는 독자가 있다면, 서점에서 출판사 혹은 총판으로 주문을 합니다. 때문에 책을 못 구해서 못 보는 일은 없습니다. 책값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독자들에게는 읽고 싶은 좋은 책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병두: 많은 사람들이 도서정보를 주로 언론에서 접하는데, 불서의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요일간지와 공중과 프로그램, 교계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창화: 수년전 민족사와 운주사가 함께 불서의 생산량을 따져 본 적이 있습니다. 신간은 250-300여종,

한편, 1200만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포함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불자가정은 300만 쯤 됩니다. 1가구당 어른을 2명으로 한다면 600만 명이 불서의 잠재독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400만권의 불서가 유통되고 있다는 계산에 맞춰볼 때 불자들의 1인당 독서량은 한해 0.6권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불자들은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임연태: 좋은 불서의 생산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윤창화: 좋은 책을 만들려면 필자, 출판사, 독자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선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독자도 형성됩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시장이 개척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출판사도 좋은 편집과 기획으로 독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독자는 좋은 도서를 구매해주고 남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불교 서적에 대한 독자의 수준

## 최승천 조계종 출판사 본연 기능 강화 노력을

## 이규만 무상 유통되는 불서 차츰 줄여나가야

교당은 공간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소위 '관광사찰'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관광객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 불서가 얼마나 많고 좋은가를 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임연태: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서점들이 있는데 불교너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반면에 불교전문 서점이 있지만 영세합니다.

최승천: 서점은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매대를 늘리고요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차라리 인터넷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 24의 1년 매출은 1620억, 인터넷 서점 1위인 교보문고의 매출은 3297억으로 온라인 3대 서점 매출을 합한 것보다 적습니다. 결국 방법은 인터넷

을모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규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좋지만 포교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병두: 그 쪽이 중요하지만 정말 책이 없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규만: 그렇습니다. 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성경 등 어린이를 위한 책들이 체계적으로 안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그것이 미흡하므로 이를 해소할 길을 하루 속히 찾아야 합니다.

임연태: 조계종이 올해부터 불교출판 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한다고 합니다. 또 불서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지가 전례해 나갈 캠페인과 함께 출판과 독서 시장이 탄력을 받고 불자들이 불서 읽기를 생활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kukbukarma.com

###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불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불로 제작된 괄사는 수증기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궤양,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끌어주면 된다. 또한 굽은 자세에 붙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기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 서 바깥쪽으로 끌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c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호 및 심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시범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병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저자 남산스님  
병상진료관  
환자 약 10,000명

天機秘傳

## 2008년 戊子年 戊子年 戊子年

# 핵심 택일지

365일 매일 한정적 한눈에 훑어 볼 수 있는 58장 택일지 2008년 戊子年 戊子年 戊子年 특수래정비법 공개...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운을 짚어보는 법

- 매일운세吉凶판단법
- 당일 일상행사吉凶표
- 자신의 계수대동 방향자리
- 결혼 약혼 택일법
- 장례행사 이장의 길흉표
- 日辰法 보는 조건표
- 建除十二神 정국도와해설
-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 상담자吉凶 來占法
-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 이사방위 길흉표
- 건축, 상량, 개업일 판단법
- 月日辰 해당 身殺조건표
- 二十八宿 정국도와해설
- 황홀도 길흉표와 해설
- 생기복덕 길흉표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사주명리 한방치방학 4x6배판/徐壽康지음/양정비 권880쪽, 1권6800원/각 권 50,000원

그림 사주대전 4x6배판/이선임, 전효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비/김성진 지음/30,000원

적선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정비/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장호)

### 대권의길 명당에 있다

명당이 대권주자를 만든다 / 대권주자가 되려면 명당을 얻어야 한다 / 명당을 얻으려면 명지관을 만나야 한다

지사는 제수도의 묘사 시간만 있으면 로남 자택에서 수백과 자기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다. 또 주택 시간이나 평면도만 있으면 자택에서 수백을 찾아낸다.

대권의길 명당에 있다  
지리학의 근원(根源)  
자연과 인생 / 지기론(地氣論)  
수기론(水氣論)  
승기감응론(同氣感應論)  
신세론(山勢論) / 음역개론(陰陽開論)  
명지론(名地論) / 지남침론(指南針論)

김복선 지음 / 인문출 / 304쪽 / 원가 20,000원

### 羅經과 立向法

새로운 풍수학의 획기적 지침서

나경과 입향법을 알면 부와 귀를 얻을 수 있고 부와 귀를 얻는 길을 쉽게 풀이한 책이다.

음택은 자운개로 자연의 흐름을 포용하고 땅의 기운을 찾아 길흉을 알고 양택은 인운개로 생황의 유효성을 찾아 행복의 길을 연거 하게 한다.

풍수지리학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여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복사의 묘지를 좋은 자리에 모시면 조상의 음덕으로 번복(復讎)한다고 믿으니 비록 타고난 운명이 불행해도 조상을 吉地에 안장(安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신국판 / 羅經 4배판 지음 / 20,000원